

교회 목표

신성한 예배
천국인으로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골로새 3:3)

주관총현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H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2001년도 제6차 학술·세례식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본당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그에게 속한 자를 세례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하나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이다’ (E.P. Clowney의 ‘교회’ 중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8).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영혼에 새기는 일이다. 또한 그것은 성자 하나님의 제자요, 성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전(殿)으로 살아가야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변에 학습·세례에 입하는 이들은 모두 진정한 연합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란다(해당자는 반드시 오후 4시30분까지 본당 자기 자리에 참석하실 것).

성탄 축하 찬양의 밤

제1교육위원회 주관으로 12월 24일(월) 저녁6시, 갈릴리홀에서

2001년 12월 24일(월), 저녁 6시에 ‘갈릴리홀’에서 제1교육위원회의 주관으로 ‘성탄 축하 찬양의 밤’이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를 통해서 메시아의 나심을 축하하고, 그분의 구원을 감사하는 성탄 전야가 되도록 총현의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신앙칼럼 2002년 1월 첫 주부터

주간총현은 2002년 1월 첫 번째 주일(6일)부터 ‘신앙칼럼’을 연재할 예정이다. 신앙칼럼 기고자는 현재 총현교회 시무장로들이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권면과 당부, 그리고 신앙적인 나눔을 기고하게 될 것이다. 1월달 기고자는 다음과 같다.

1월 6일 – 노광현 장로(당회 서기)	1월 13일 – 이형수 장로(당회 부서기)
1월 20일 – 김익환 장로(신교류위원장)	1월 27일 – 이병락 장로(교우류위원장)

특별재직외 교구교인중 총회	오늘(16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오늘(16일) 4부예배 후 본당에서, 전교인 대상으로, 교구모임은 없음	2001은퇴자 및 근속표창 30일 찬양예배시 본당에서(영단은 주간총현 8면 참조) 지난주 일꾼 명단 결정·권사회 권사회장 임명표 등으로 정정한다
-------------------	--	--

지난 주요예배 메시지 두 때 (마 24:36~37)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땅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36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과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사야는 영원함과 유한함을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욕세에 대조시켰다. ‘모든 욕세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풀이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와 기쁜이 그 위에 불이요. 이 백성은 최후의 날에 대하여 너무나 부패할까지 말мыш신 것적립 두게될 수 있다. 그러단만 진실로 그분의 말씀이 그렇게 무력한 것인가? 그제 아니다. 실사 그 날과 시간을 가르쳐 줄지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것은 믿음을 평가하는 조건이 된다. 믿음이 없으면 그 날과 시간은 허무맹랑한 것이며, 믿음이 있다면 가장 확실한 날과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37절)

‘노아의 때’란 어떠한 때를 말하는 것인가? 앞에서 언급한대로, 천지가 없어지는 때요 아무도 모르는 때이며,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임과 심판의 때를 의미한다. 인류는 오래 전, 노아가 살던 시절에 하나님께 온 심판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사뮈엘의 죄악이 세상에 간행함과 그 노아의 때와 같이 형상 악한 문란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두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창 6:6~7).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격렬한 심판을 다시 언급하셨다. 다를 것이 있다면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뿐이다. 그리고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자가 오는 때와 다음과 같은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다. ‘미혹’(마 24:4~5, 23~24), ‘썩음으로 인한 죄 흠과 심한 굶주림’(마 24:6~8), ‘독심할 핍박’(마 24:9, 19~21), ‘속임수와 배반’(마 24:10~14), 그리고 ‘천지의 변동’(마 24:29).

사도 바울은 노아와 같은 때, 인자가 오는 때에 대하여 세대의 패역함을 징조로 삼았다. ‘내가 이것을 일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들 사방에서 돈을 사랑하여 지극히 고만하며 행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친소하며 친제하지 못하며 사사하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밀며 조공하며 자기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내면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딤후 3:1~6).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지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고 하고 속이고 하라’(딤후 3:12~13).

“인자의 오는 것도 그리와리라”(37절)

그분은 정말 다시 오실 것인가? 분명히 그렇다. 그분은 구원의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심판의 주(主)로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 거문 데서 하물라 율리시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 1:11). 그런데 문제가 있다. 누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는가? 그분이 처음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아무도 분별하지 못하였다. 오직 천사와 별에 의해 이끌림 받았던 목자와 동방의 박사들만이 메시아를 발견하였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예수께서 천국복음을 가르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종교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귀신이라, 바알세불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날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죽은 자까지 살려서 그를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이다. 절대로 외면하거나 파할 수는 만일 이루어질 것이다. ‘그가 장차 말로 자라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여 또 자라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혀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베훈고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한 때를 지니리라’(단 7:25). ‘내가 들은즉 그 세모로 웃을 일고 감을 위하 이는 자기 그 죄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명성하는 자를 가리키 명성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한 때를 지나서 심도의 권가 다 깨어지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리라’(단 12:7).

신약 답례 성령의 일반사역과 특별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에는 일반사역과 특별사역이 있다.

성령은 일반사역으로 사람의 영혼을 갱신시키지는 않지만 인간에게 죄를 제재하고 사회생활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무를 증진시켜 줌으로써 도덕적 감화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하게 보여지는 분량대로 모든 인간들에게 차별없이 나누어 주시는 일반총론의 은사를 이루신다. 그러나 이것으로 죄인으로 하여금 영적 선을 행하게 하거나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할 수 없다. 따라서 기뻐하며 사회적, 도덕적 생활의 외면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미약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로 회개하지 않는 자와 유기된 자를 포함한 전 인류에게 일반총론과 관련된 유익을 얻게한다. 따라서 성령의 일반사역의 복음은 그리스도 사역의 간접적인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성령의 일반사역과 특별사역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 먼저 성령은 자신의 일반사역에 의해 중생받지 못한 자연인들에게 모든 도덕적 생활을 일으키고 유지·강화·지도하신다. 그런데 성령은 구속적 영역에서도 역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활을 일으키시며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정해진 섭리로 인도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영역에서의 성령의 사역과 구속 또는 재창조의 영역에서의 그것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전자는 일반적인 도덕, 윤리적 생활에 국한되지만 후자는 중생 즉 거듭남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성령은 자신의 특별사역에 의해 죄의 능력을 이기고 파괴하시며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를 하고 그 파괴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순종을 행하게 하며 세상의 빛으로서 생의 각 방면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향기가 되게 하신다.

여 곡(목사, 12교구지도)

Zacharias' Prophecy

(Luke 1:76-79)

"To give to His people the knowledge of salvation By the forgiveness of their sins."

Today's Christmas message centers on the Holy Spirit filled prophecy of Zacharias, the father of John the Baptist. Zacharias was a priest, and he and his wife, Elizabeth, were both righteous in the sight of God. Prior to John's arrival, they were childless because Elizabeth was barren, and they were advanced in years. Zacharias had prayed to God for a child, and one day while he was working in the temple of the Lord an angel, Gabriel, announced, "Do not be afraid, Zacharias, for your petition has been heard, and your wife Elizabeth will bear you a son, and you will give him the name John" (v. 13). What a wonderful encounter! Zacharias was blessed to meet an angel and receive the long awaited prayer for a child.

This child, John, was destined by God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hile yet in his mother's womb, and, "go as a forerunner before Him (Jesus Christ) in the spirit and power of Elijah, to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back to the children, and the disobedient to the attitude of the righteous, so as to make ready a people prepared for the Lord" (v. 17). The very last book of the Old Testament promised that before God would send the Messiah. He would send Elijah the prophet who would "restore the hearts of the fathers to their children and the hearts of the children to their fathers," so that God would not come and smite the land with a curse" (Mal. 4:5&6). All of Israel were waiting for the fulfillment of this promise of God. Isn't it amazing that God's angel showed up to Zacharias to proclaim the coming of the spirit and power of Elijah in John the Baptist?

The Bible clearly tells us that the name of the angel who spoke to Zacharias was called Gabriel, "I am Gabriel, who stands in the presence of God, and I have been sent to speak to you and to bring you this good news" (v. 19). Gabriel not only visited with Zacharias, but he also called upon Mary, the mother of Jesus, "Now in the sixth month the angel Gabriel was sent from God to a city in Galilee called Nazareth, to a virgin engaged to a man whose name was Joseph, of the descendants of David; and the virgin's name was Mary" (v. 26&27). Gabriel told Mary, "you will conceive in your womb and bear a son, and you shall name Him Jesus.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and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and His kingdom will have no end" (vv. 31&32). He

also told Mary about her relative, "Elizabeth has also conceived a son in her old age; and she who was called barren is now in her sixth month" (v. 36). Upon hearing this news, Mary went to visit Zacharias and Elizabeth (vv. 39&40), and she stayed with them for three months (v. 56).

After John was born, and Zacharias and Elizabeth came to circumcise him on his eighth day, Zacharias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His words of prophecy included, "And you, child, will be called the prophet of the Most High; For you will go on before the Lord to prepare His ways; To give His people the knowledge of salvation by the forgiveness of their sins" (vv. 76&77). Amen! Indeed, God's Old Testament promise was fulfilled in John's ministry life. He preached repentance, for the kingdom of heaven was at hand, and he baptized with water those who confessed their sins. He spoke, "I baptize you with water for repentance, but He who is coming after me is mightier than I, and I am not fit to remove His sandals;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Mt. 3:11). Who is He? He is Jesus Christ.

Jesus Christ is the Sunrise from heaven who came to visit us. This earth and all its inhabitants were doomed from sin. Life without the Sunrise is dark, cold, and sick. It leads only to death without hope. But there need not be any more darkness because the rising sun has come to us "because of the tender mercy of our God" (v. 78). Amen! Jesus came "to shine upon those who sit in darkness and the shadow of death, to guide our feet into the way of peace" (v. 79). Amen! His sunshine shines upon all those who sit in the darkness. On this earth there is a heavenly light shining all the time.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Gn. 1:3). This is God's reign, His own deed. No human asked for such grace, nor could have any human imagined it.

What a wonderful words the Holy Spirit gave to Zacharias. Although he did not even see Jesus Christ, only his son, he prophesied the amazing truth of God. Jesus Himself tells us, "I am the Light of the world; he who follows Me will not walk in the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Jn. 8:12). Jesus Christ gives us life because He is the Light. All humans sit in the darkness of sin, but those who "walk in the Light as He Himself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1 Jn. 1:7). Without the coming of Jesus Christ, no one

could escape the darkness of sin. Everyone would sit in darkness.

Without Jesus Christ, the Sunrise, all humans also sit in the shadow of death. Everyone sits upon the grave. Why? Our journey towards death is because of sin. No one who has sin can reach God's glory. No, not one!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see Rm. 3:23). The Bible specifically states,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m. 6:23). The ways of sin lead to death. No one can reach eternal life on their own. Every single person in this church, in our country, in the entire world sits in the shadow of death. "It is appointed for men to die once and after this comes judgment" (Heb. 9:27). All humans die. Everyone has to die because that's how God made it. Praise God that His Light shines on those who sit on the shadow of death. God's Light shines on those who sit on the shadow of death. Everyone sins but the sunshine from heaven shines from the heavens to the grave. Jairus' daughter, the widow of Nain's son, and the brother of Mary and Martha (Lazarus) were all touched by Jesus. Wherever Jesus went on this earth there was death and dying. He destroyed, overpowered, and won over this great enemy.

The Sunrise from on High, Jesus Christ, will guide us in the way of peace. He guides us. He guides us not toward fire or jail, but toward peace. When we worship, we sometimes sing, "Teach me Thy way. O Lord, Teach me Thy way! Thy guiding grace afford, Teach me Thy way! Help me to walk aright, More by faith, less by sight; Lead me with heavenly light, Teach me Thy way!" The reason why Jesus came to this earth is to give us peace. That's the true Christmas message.

My friends, do you have the meaning of the real Christmas in your hearts? Or are you just excited because Christmas is a popular holiday, a happy religious cause? Have you experienced the Light that shines upon the darkness of where you sit? Do you see the Light that shines upon the shadow of your grave? Are you living under the Light that guides you toward peace on this earth and everlasting life above? Zacharias' prophecy holds the power of Christmas. I pray you receive this power in your heart, and truly worship this Christmas season with His Light shining upon you. 🕯



김성관 목사

사가라에게 임한 은총

오늘의 성탄 메시지는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하여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라의 예언으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사가라는 제사장이었으며, 그 자신과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가 없이 그저 나이만 먹어갈 뿐이었습니다. 사가라는 자녀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가 성전에서 일하던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사가라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3절). 얼마나 놀라운 만남입니까? 사가라는 천사를 대면하는 은총을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오랜 동안 기다리던 소원을 응답 받았습니니다.

사가라가 깨달은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 사가라의 아들로 태어난 세례 요한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출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라” (17절). 그리고 주와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그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와 그의 두루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천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들로 그 땅을 철거 하노라 하시리라” (말 4:5~6).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가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세례 요한이 성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리아에게 임한 기쁜 소식

성령은 사가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 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19절). 가브리엘은 단지 사가라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고 불리는 예수 어머니에게도 찾아갔습니니다. “이렇게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에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6절~27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컫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31절~32절). 가브리엘은 또한 마리아에게 그녀의 친형인 엘리사벳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맺었 습니니다.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바닷이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36절).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방문하였습니니다(39절~42절). 그리고 마리아는 세 달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니다(56절).

사가라의 예언

(눅 1:76~79)

“...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이 전하는 기본 소식, 예수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팔 일이 지나자,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기 위해 왔고, 사가라는 성령으로 출산했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와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6절~77절).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구약의 언약은 세례 요한의 공적 생애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 하라고 선포하였고,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말했습니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듣기도 감당할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 3:11).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한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돈을 아첨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방문하시기 위해 오신 분으로서 하늘로부터 비치는 ‘돈은 아첨해’입니다. 돈은 아첨해가 없는 삶은 어둠과 추위, 그리고 질병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니다. 이러한 삶은 소망이 없으며, 단지 죽음의 병망으로 달음질 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태양이 우리에게 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중을 인함이라 이로써 돈은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78절). 아멘! 그렇습니니다. 예수께서는 “어둠을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밝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니 돈은 해가 되셨습니니다(79절). 아멘! 그의 돈은 햇빛은 어둠에 없어하는 모든 자들을 비추습니니다. 이 세상을 언제나 영광스러운 하늘의 빛으로 비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니다. “빛이 있도라”.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창 1:3). 이러한 일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고유하게 행하시는 통치입니다. 인간은 그러한 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떤 인간도 그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죄를 씻기시는 이

성령께서 사가라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그는 비록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예언하였습니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 예수 그리스도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함이 있고 그 아들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요 1:9).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죄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영원히 어둠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이

돈은 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모든 인류는

죽음의 그늘에 놓여있습니니다. 모든 이들이 무덤 위에 앉았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점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롬 3:23 참조).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성경이 특별히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삶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죄의 길은 죽음을 이르는 것이며, 누구라도 그를 스스로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구성원이든, 한 국가의 국민이든, 세상 어떤 곳의 한 사람에게까지도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모든 인류는 죽습니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그늘이 모든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죽음의 그늘에 드리운 자를 위해 비추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해는 하늘에서 무덤까지 비추습니니다. 회당장 아이로의 딸, 나인성에서 사는 혼자녀 여인의 아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인 나사로도 모두 예수에 의해 만져졌습니니다. 예수께서 가셨던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죽음과 질병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가 승리하셨고, 죽음이라는 크고 막대한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는 평강으로 이끄시는 이

높은 곳으로부터 때때로는 돈은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평화의 길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불과 감옥을 향하지 않고, 평강으로 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 때때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게 주의 길 가르쳐 주소서.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보여 주소서.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 내게 임하시라, 내게 걸어야 할 주의 길 가르쳐 주소서! 주소스! 주소스! 나로 하여금 의의 길 견도록. 모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도하여! 오 주여, 하늘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내게 주의 길 가르쳐 주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참된 기쁨의 성탄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돌아오는 성탄절이 흥분되는 이유가 단지 공휴일이며 종교적으로 행할 것 기이기 때문은 아닙니까?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죽음의 그늘을 밝게 비추는 빛의 형상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점점 다가오는 무덤에 드리운 사망의 그늘을 비추는 빛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평강과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보호하는 그 빛 아래에서 살고 계십니까? 사가라의 예언은 성탄절의 능력을 깨우쳐 비추는 것이 거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러한 능력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권위에 임한 돈은 해와 같은 그분의 빛을 소망하여서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기도합니다. ■

방글라데시 단기선교 이야기 - 다섯 축복의 땅, 방글라데시

정 현 주 (단기평신도 선교사)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며 방글라데시로 떠난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돌아와 보니 많은 것을 얻으려 떠났던 시간임을 먼저 고백하고 싶다.

방글라데시는 나에게 축복의 땅이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정말 확실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떠날 당시에 난 내가 가진 무언가를 포기하고 떠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 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떠났던 것이었음을 고백한다. 물론 지금도 그 사랑에 전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답답해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던 나. 아니 이해하지도 못했던 나. 현지인들의 시선을 받고 우물쭈머곤 하던 나.

선교사라는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내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한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나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알았고, 내 안에 없는 그 사랑을 주시길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변변히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고 있었기에 참 많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기다리지 못하는, 바라보지도 못하는, 연약한 나의 맘을 보게 되었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큰소리 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인정하려 하지 않았을 때는 맘이 참 힘들었는데, 도리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았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기뻐함으로 찬양할 수 있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단번에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진 않았지만, 내 약함을 알기에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난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연약한 사람이다.



바뀌어지진 않았다. 나는 지금도 이런 나의 맘 속에 있는 죄악의 생각들을 놓고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이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었고 또한 이렇게 연약한 나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었다. 사실 짧은 단기선교를 통해 큰 열매를 맺을 수는 없었지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느끼며 기도할 마음을 얻게 되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방글라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돌아오기 며칠 전부터 나에게 이런 맘에 크게 자리 잡았다.

"나에게 축복의 땅이었던 방글라. 이곳에 살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느낄 수 있기를 위해, 그래서 이 땅의 방글라들이 그들의 조국이 축복의 땅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위해 나는 빗진 자의 맘으로 기도해야겠다."

하지만 이 글을 쓰면서 내가 얼마나 방글라를 놓고 기도했었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다. 한결같은 맘으로 기도하는 내가 되길 소망한다.

세계관 13

하나님은 증명되지 않는다. 믿을 뿐이다(2)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다. 그가 갈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 그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 죽는 것도 싫고 사는 것도 싫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신(神)이 있느냐 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질문도 이와 같다.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의 주장은 부정할 수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의 주장을 실증적(實證的)으로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의 지식의 영역은 어느 동식물의 세계만도 못한 지경이다. 이렇게 불확실이가득한 세상에서 신을 실재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없다. 신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실증적(實證的)으로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신을 부정할 수 있듯이 신을 긍정할 수도 있다. 결국 신의 긍정 또는 부정(否定)이란 인간의 이성으로는 입증되거나 반증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스 쿡(Hans Kung)은 <왜 그리스도인인가>에서 신을 믿기 위해서는 "실존적 결단(實存的決斷)"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기의 실존을 걸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만이 남아 있다. 당신은 무신론자인가? 아니면 유신론자인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무(無)이다. 아무 것도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無)이다.

모든 인간은 이 실존적 결단 앞에 서야 한다. 누구도 이 명제를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인간의 최후의 결단은 바로 신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걸고 선택을 하는 것이다. 신의 존재유무를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신을 믿느냐 아니냐는 전부 '나의 결단'에 달려 있다. 다시 한번 말한다.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끝"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떠나간다. 나의 믿을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막 9:24)

(다음 주에 계속) (안창덕 목사)

14기 LMTC 훈련생 정탐훈련을 마치고

이해 형 (LMTC훈련생)

민수기 14장 1절~9절을 통해 성경적 정탐꾼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마음을 배운 후, 강한 용사의 마음을 품고 이태원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태원의 영혼들은 내 발마디"를 의지하고 공격적인 시각을 가지고 마음을 다짐어 거리를 탐방하였습니다. 이태원의 땅을 처음 밟았을 때는 나그먼 어두운 영이 다스리고 있다는 침울함과 답답함이었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모스크 사원이 보였습니다. 저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리라는 담대한 마음으로 사원에 들어가 기도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님의 찬송으로 모스크가 무너지고, 이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모스크 사원에 있는 직원인 다가와서 화를 내며 우리에게 모스크 사원에서 기도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무례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담대히 전한 다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과 호텔거리를 걸으면서 미숙한 영어와 몸짓으로 외국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대다수였는데 그들은 호의적으로 복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음을 새삼 느꼈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싶었지만 언어로 인해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영어 성경으로 공부해야겠다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태어나 복음의 홍수 속에 사는 것에 대해 다시금 감사하였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은 한국, 촛대가 옮겨지지 전에 나라를 위해 더욱 애기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번 정탐 훈련을 통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로써 싸워야겠다는 결심도 해봅니다. 또한 전도하며 팀원들과 주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됨을 느꼈습니다. 다시금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비 선교사로서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순주 (청년1부)



아버지, 참으로 오랜만에 아버지께 글을 올립니다. 순주에게 올 해의 삶도 허락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순주와 작년과 올 해 얼마나 아버지께 감사한지 아버지께 아시죠? 때론, 나의 삶을 간섭해 달라고 이야기했다가도 아버지가 간섭해 주시는 게 너무 힘들고, 날 내러놓기 싫어서 날 내버려 두라고 했던 순간들... 그러면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기에 아버지 앞에 다시금 날 붙들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순주를 사용해 달라고 했던 순간들 모두가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었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저를 참 잘 아시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싶어하지도 않았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분, 나를 지켜 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싶어했던 저에게 하나님인 아버지께 더 많이 알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알았어요. 아버지는 창조주이며 통치자란 걸 그리고 전 아버지의 종이란 걸 알게 해서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종이란 걸 인정하지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시죠? 날 위해 서 있는 하나님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이런 나를 자라노라 삼아 주셨고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나의 마음 속에 늘 거하시어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나를 자라 삼아 주셨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이니란 걸, 은 만물의 주인이니라 주권자시란 걸 알고 내가 나타날 때 순주는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나의 마음을 돌이켜 볼드시며 주권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아버지가 허락하신 생애 동안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되신 하나님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화와 도덕과 윤리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믿고 알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되신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나의 신분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이 늘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잊지 않는 딸로 늘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짚과 단단한 식물

이 동 준(집사, 청년부 교사)

교회에 처음 나온 지난 1988년 봄, 새가족부에서 매일 구약 두 장, 신약 한 장을 읽으라고 하여,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창세기와 마태복음에서부터 성경을 읽은 적이 있다. 그런데 창세기 때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에서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되었다. 교회에 나온 지 두 달여밖에 되지 않아 아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잘 모르는 때였기에,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게 되었다.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부모와 자식간의 친연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물론 결과적으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진 않았지만, 참된 신이라면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도 신의 성품상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고민에 부딪히게 되니 말씀을 읽기는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내가 찾던 절대자는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읽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을 읽던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럿한 고민에 빠졌 있을 때 문득 어떤 장면이 뇌리를 스쳐갔다. 한 어머니가 한 손으로는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면서 자신은 닭다리를 먹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며 왜 어머니는 자기만 먹을것만 닭다리를 먹고 아기에게는 우유만 먹일까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기에게 맛있는 닭고기를 먹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고기를 먹을 수 없고 설령 먹는다 해도 배탈이 나기 때문에 닭고기를 먹이지 않은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이 나니, 내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고민하고 회의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고기나 어린이 하는 추론을 하게 되었다. 아기가 크면 그 어머니가 아기에게 고기만 먹이 아니냐 더 좋은 것을 먹이듯이 지금은 이 말씀을 먹을 수 없지만 내가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모른다는 부분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성경을 꾸준히 통독을 하였다.

일년 후 다시 창세기를 보았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전혀 거부감이 없이 읽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니기에 부모에게 자식까지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신 수가 있으시고 그보다 더한 것도 말씀할 수가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이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때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시험당할 때 의할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뿐이다.

지금 나의 예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것들 사모하라. '유인' 이가 없어서 우유를 먹고 있다. 우유를 맛있게 먹는 이런 말을 보면서 다음의 말씀을 묵상해 본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꾀술과 외식과 시기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함이라"(벧전 2:1-2).

"대저 것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너희는 지각을 사용하도록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히 5:13-14).

만평

글·그림 이충원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시는 일

조 래 정(청년1부)

지난 한 해, 내게는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한 해였다. 지독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그 취직을 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고, 무엇보다도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알아온 하나님. 그 분은 언제나 나의 이기적이고 사소한 기도까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였다. 내가 그분을 사랑할 때뿐 아니라 그분을 의뢰하고 어리석게 행동한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지... 끈기있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요즘 나는 그분의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 아니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소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소망한 덕분에 예전보다 내 삶이 훨씬 더 기쁘고 행복했기 때문이다. 언젠가 한창 사랑에 빠져 있던 친구가 말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이유 없이도 행복해지고 며칠 밤을 지새워도 피곤하지 않게 된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사랑하는 단 한 사람으로 인해 그토록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나서, 혹은 그 이성이 아닌 마음으로 그 행복할까? 누군가를 사랑하는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이다. 그래서 난 연인들의 사랑과는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 그대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했다. 동네 은행에서 자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장구 직원을, 신제품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주는 화장품 가게 점원을, 늘상 피다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 인상을 찡푸리고 있는 회사 동료들 사랑하기 시작했다. 내가 건넨 단정한 청한 한 마디에, 조만간 사랑이 한 걸음에 가까워지는 그들의 행복한 표정을 볼 때면 놀라임까지이다. 장담컨대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신속하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이웃들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다 한 가족이 될테니까 조금 일찍 사랑하고 싶었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조건 반만만 하는 것이 사랑일줄로만 알았던 어린 아이 같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살라는 뜻으로 매일 매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기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한국 교회사] 토마스 목사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와 제너럴 서면호 사건

귀츨라프 목사가 한국을 다녀간 후 33년이 지난 1866년, 영국인 토마스(Robert J. Tomas)목사가 대동강으로 입국했으나 선교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순교하고 말았다.

1840년 웨일스 지방에서 회중교회 목사 아들로 출생한 그는 1863년 목사 안수를 받았고 런던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1863. 12) 그러나 임지에 온 지 불과 3개월만에 아내가 병들어 죽자 크게 충격을 받아 선교를 포기하기도 했다. 그 후 조선을 관한 소식을 접하고 1865년 9월 비밀리에 조선을 방문하였다. 그가 도착한 곳은 황해도 장연군 소재 앞바다였는데 이곳에서 그는 한국어를 습득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듬해인 1866년 그는 통상차 조선으로 향하는 미국산제너럴 서면호를 타고 천진을 출발, 조선을 향하여 대동강으로 입항하였다. 토마스는 아마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는 동기에서 이 배에 편승했던 것 같다.

그러나 당시의 엄격한 해군정책과 병인양요로 말미암아 통상요구는 묵살되었고 불법적으로 침입한 서면호는 불살라졌다. 당시 배에 탔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고 토마스 목사도 심문을 받은 후 양각도 열 쪽설에서 참수형을 당했다. 1866년 9월 2일, 토마스 목사는 27세의 나이로 아직도 개신교의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땅, 뒷날 그가 گرم이라던 곳 두 수장은 교회가 그의 죽을 위에 세워졌던, 평양의 대동강 가에서 선교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순교하고 말았다.

제너럴 서면호 사건은 토마스 목사의 죽음과 함께 끝나지는 않는다. 그 배가 미국 선적이었기 때문에 이 배의 행방을 추적하는 미국 해군의 노력이 계속되었고, 그것은 뒷날 신미양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알려지기 시작한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관심이 1882년의 한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과 그 뒤를 이은 미국 각 교단의 선교사 파견으로 연결되어진 것이다.

+ 양요설

내 아들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딤후 2:1)

5교구 한자경 성도(여61세) 열순간 감소중으로 자기 지로 중입니다. 병이 치유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최수영 집사(남55세) 간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12교구 윤여전(남59세)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입니다. 특히 뇌를 많이 다쳐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민병숙 집사의 남편으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온 가족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입니다. 의식의 회복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3교구 이상전(남74세) 근위측중-신체의 아래부분부터 서서히 굳어가는 병으로 7개인데 10세를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극빈가정의 어린이로 현재 부평소새 사비복지재단인 성동원에 있습니다. 어린 영혼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병이 치유되도록, 또 그 가정에 위로와 돕는 손길이 더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은 신실하지만 육체적으로 연약하였던 디모데를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여지리라" 환우들이 교회의 중에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강건하여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신 영 호' 형제를 소개합니다

81년생이며 대학 2학년 학생입니다. 충현 교회 고등부에 다니다가 3년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어서 든든하고 앞으로는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오 은 비' 자매를 소개합니다

83년생이며 대학 재학 중입니다. 알고 지내는 언니의 전도로 교회에 나왔는데 오랜만이라 느낌이 새롭습니다. 교회에 빨리 적응하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배 성 온 (대학부 새가족 통신원)

말고 오오한 그 밤을 / 12월 7일 금요일

예수님과 바울의 연결 제 립

우리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좇으라고 하셨을 때 먼저 부친을 장사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당연히 예수님의 명령에 앞서, 하나님의 나라에 앞서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순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눅 10:62).

우리는 여기서 재림에 대한 제자들 예수님의 견해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재림을 세상 중심으로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자신들의 지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재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마 10:23). 그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든 것이 아니라 핍박을 당하며 피해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로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재림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마 3:10).

더욱 두려운 것은 이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핍박받으면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림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을 먼저 생각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을 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가 같이 오리라" (마 24:23, 24). 그렇습니다. 재림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란 끊임없이 전도해서 선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도 재림에 대해 주님과 같은 내용으로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는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절단코 앞서서 못하리라"고 두렵고 부정적인 재림을 이야기했고, 5장 2절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며 아무도 모를 재림의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바울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재림을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림이 부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재림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핍박이 있단 말하지도 복을 전할 것"을 주장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파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과 바울은 재림에 대해서도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대로 항상 깨어서 재림을 먼저 생각하는 삶, 복음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주일 찬송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미국 사람 에드먼드 해밀턴 씨어즈 박사가 1849년에 쓴 이 찬송은 미국인에 의해 작시 작곡된 최초의 성탄절 찬송가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의 위기와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으로 불안하였다. 그래서 천사들의 메시지를 노래한 이 곡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찬송이 되었다.

- 1절 -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못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에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 하도다
- 2절 - 옛 천사 날개 펴고 이 땅에 내려와 그 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쁨 뛰놀며 다 찬송 하도다
- 3절 -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침 지고 있는 자 그 형산준령 넘노는 온 돌이 곤하 나 이 피의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 4절 - 옛 선지 예언 음하여 배들렘성 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사는 사람들 다 화답 하도다

이 찬송은 천사의 메시지와 성탄의 내용이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잘 표현되어 있다. 아주 부드럽게 가사를 잘 표현하여 불러야 할 것이다. 곤하 자고 있는 아기에 수면 옆에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기쁘고 아름답게 부르다 생각하면서 ...

(한양원회)

아이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요

정혜리 (유아부 교사)



살짝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참으로 마음에 달랐다. 나는 아이의 대답을 듣고 아이들에게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서로 사랑하는 착한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들은 "네!"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물론 아이들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대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저것 따져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순순하게 믿는 아이들의 믿음이 정말 값지다는 것을 느꼈다.

하루가 다르게 키도 크고 말도 늘어 가는 아이들을 볼 때면 참 감사하고 기쁘다.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돌아다니던 아이들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조용해 하며 기도시간에 작은 손을 모으고 는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기뻐하고 대견하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어린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박지혜 (유년부 6과 1반)



저에게는 올해 세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유년부 성가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송을 불러서 성가대원이 될 수 있었습니 다. 성가대에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정말 기분이 좋 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빠가 세례도 받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 습니다.

세번째는 친구를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소현이에게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현이가 정말 같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이면 성가대 연습 때 문에 혼자서 교회에 갔는데, 이제는 친구랑 같이 교회 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원은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생

요나(Jonah)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자, 그럼 이제부터 '요나'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요나'를 읽을 때에는, 먼저 '요나' 속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편협하지 않은 사랑과 '요나'의 편협한 사랑, 그 결과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깊은 갈등의 안개가 깔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정작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 즉 나에 사람에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도 불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요나'는 비록 선지자이지만, 이방인이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즉 복음에 대해 무지한 사람입니다(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신약에서는 적린에게 다가가서 영혼을 찾으려는 예수께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갑니다. 눅 15:2 참고). 그러므로 '요나'를 읽을 때에는,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마음으로 일할 때 생길 갈등,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영적인 무지함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그러한 부분을 표시하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음침침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도, 감사가 없이 불평을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나'를 읽을 때에는 '순종'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흥미롭게도 '요나'에서 발견되는 것은 '요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 '요나'가 뱃전 안의 사람들, 그리고 물고기, 나뭇, 동, 뱀, 벌레 등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종인 '요나'만이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겪은 사흘간의 아픔은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38-41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을 자기의 죽음과 매장, 그리고 부활을 기리는 삼일절의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주님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고난에 들어갔고,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를 읽으시면서 참된 순종의 중요함을 생각하시고, '요나'가 어떻게 죄와 마음이 하나가 되는 참된 순종으로 아물릴 만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보다 더 큰 이적! 그것은 바로 '나뭇' 백성들의 죄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나뭇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는 벌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 도시의 사람을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면 아직 중에 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입니다. 비록 '요나'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보내야 할만큼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김동하 목사(출판국 지도)

Catechism

13.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생명이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1) 구원에 이르는 믿음

사람은 모두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결과로 성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모두 사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속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해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배워서요 역사하여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음 1.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로 무엇을 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행전 1:9).

물음 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떠한 것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할 수 있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주로 마음 속으로 들인다는 말입니다(로 1:12).

물음 3.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무엇이 반드시 따라야 할까요?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또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약 2:22).

(2) 생명이 이르는 회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우선 회개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후에는 진심으로 부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를 버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죄를 용서받습니다.

물음 1.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영연히 숭배할 수 있을까요?

진지 정복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숭배하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함입니다(제 32:23).

물음 2. 회개로 인해 패망하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한 행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서 패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골 1:8-30).

물음 3. 우리의 회개함으로 나날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사 55:6-7). 하나님을 참히 애지아비하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롬 8:15).

(오윤환 전도사·고동부 부지도)

교 회 소 식

모임

1. 장로 회요사별기도회

일시: 17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0호

2. 안수집사의 회요사별기도회

일시: 18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0호

3. 전양위원회의 월례회 및 총회

일시: 오는 금요일 저녁 후
장소: 4층 안양리교회실

4. 감사위원회 총회

일시: 22일(토) 1800
장소: 감사위원회실

5. 봉사위원회 총회

일시: 22일(토) 1530
장소: 봉사위원회실

6. 기획위원회 월례회

일시: 20일(목) 1800
장소: 신교관 301호

7. 권사회의 총회

일시: 오는 1500
장소: 감리리홀

일시: 오는 금요일 저녁 후

장소: 감리리홀

5. 베드로 10지교회 총회

일시: 22일(토) 1830
장소: 강경향 회관

6. 예수대 2지교회 총회

일시: 오는 금요일 저녁 후
장소: 교육관 206호

7. 예수대 15지교회 월례회

일시: 오는 금요일 저녁 후
장소: 베다니홀

8. 마리아 17지교회 총회

일시: 20일(목) 1100
장소: 감동성 집사회(수재)를 베풀다

402-306, 농수산물 유통 111-354-9750

2. 박근은 은혜사리집사

(은혜사 은혜사의 남관, 2교구 청담4
구하) / 10일 밤세, 12일 장례

3. 김삼순 원로목사

(강신명 성도 부인, 강인수 집사 모친,
공이정 성도의 시모, 4교구 한양구역)
/ 10일 밤세, 11일 장례

4. 이복래 성도

(이정애 성도의 부인, 15교구 삼도성도)
/ 11일 밤세, 13일 장례

결혼

1. 김우정 (김영복 집사, 이정애 성도의
아들, 5교구와 박성희 장남의 딸,
송정공공회) / 20일(목) 1400 감리리홀

2. 박학진 (박연복 성도, 김혜수 집사의
아들, 1교구와 이지현 장녀의 아들,
이준호 집사의 딸, 기독교회) /
21일(금) 1230 감리리홀

1. 박순규 은혜집사

(김형숙 집사의 친정 모친, 7교구 성대
3구역) / 6일 밤세, 8일 장례

다음주 새벽기도회 기도 담당

17(월)	18(화)	19(수)	20(목)	21(금)	22(토)	23(주일)
김단용	최동규	이인원	윤주원	김형관	정연희	김경자

2002년도 전반기 장학생 선발 안내

서류접수: 2001년 12월 23일~2002년 1월 13일(3주간)
논술면접: 2002년 1월 26일(토) 오전 10:00 교육관 5층
발 표: 2002년 2월 23일(일) 후 주2총회를 통하여
문 의: 교육관 1층 104호 교육행정과 장학담당(교 471)

남단전도회

1. 바울 12지교회 월례회 및 총회

일시: 오는 금요일 저녁 후
장소: 안양리교회

2. 바울 13지교회 총회

일시: 오는 금요일 저녁 후
장소: 교육관 3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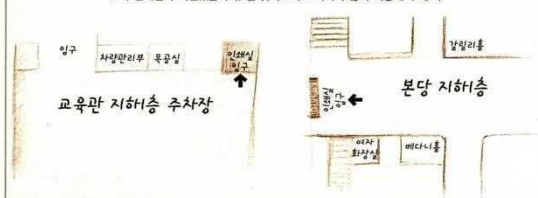
3. 바울 16지교회 총회

일시: 오는 금요일 저녁 후
장소: 교육관 414호

4. 베드로 9지교회 총회

인쇄실 이전

교회 인쇄실이 이전했습니다. 잘 찾아오시고 더욱더 많이 이용해 주세요.



2001년 퇴사 및 교육표지장자

1. 은퇴자

장로 / 195 김재형, 1172 김인관, 4083 박인선 (3명)
권사 (원로) 2460 김진만, 525 조카남 (2명)
권사 (원로)

80-572 장영순, 1550 강윤순, 2926 김복민, 3024 김옥희, 86-643 김필순, 2555 박우순, 846 박정자, 81-135 박순태,
84-1268 박광민, 904 송복희, 85-480 송태형, 1025 신순덕, 2168 신정호, 86-305 이윤선, 2738 이희운,
84-105 장귀녀, 652 전순일, 167 전정숙, 3361 정영실, 93-153 조성금, 90-70 주정원, 198 최경성 (22명)

2. 교육 표지장자

20년(권사) 2642 김경희, 1020 김우현, 2174 안옥림, 942 이준일, 430 강영숙, 10 조동숙 (6명)

남단전도회 하반기 회계감사 실시

전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명을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기간: 2001년 12월 첫주~2002년 1월 마지막 주일까지
2. 대상기간: 2001년 7월~11월
3. 감사장소: 전도위원회(교육관 1층)
4. 준비서류: 시산표 2부(2001년 1월~11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등 등

새·가·족·을·함·영·함·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1037	김선영	1	청년부	소성숙(4)	1050	김진록	19	청년부	한원(12)
1038	최은종	2	소양부	김자숙(2)	1051	김영미	19	청년부	한원(12)
1039	전종순	2	소양부	김자숙(2)	1052	이성미	19	청년부	
1040	양성일	19	고동부	강문주(15)	1053	김우영	19	사망부	
1041	박지현	19	고동부		1054	이미영	19	사망부	
1042	박지현	19	고동부		1055	이현미	12	마리아	
1043	이순영	3	호반		1056	김종원	19	사망부	
1044	박하나	13	에베다부		1057	이준일	19	사망부	
1045	강희진	11	에베다부		1058	임은주	19	사망부	
1046	윤기호	17	에베다부		1059	유유진	19	사망부	
1047	안현선	17	에베다부		1060	김지호	4	대학부	윤숙자(4)
1048	송승아	4	청년부	이강진(15)	1061	윤종태	19	사망부	
1049	조종훈	13	베드로	김연옥(13)					

* 추후 총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 세기초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총현동산(표지) 산역하심 분

지역: 남지 새계교인으로서 58세 미만
문의: 사무국 ☎552-8200 교406

교정전도회 교사모임

교정전도회는 2002년 1월 7일~11일까지 신촌정보통신학
교수전도회를 개월 성경학교를 실시합니다. 이에 교사로
하나라 사역에 봉사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교사로 봉사를 분은 교정전도회 장로님에게 신청 부
탁합니다.

보니악 총장단원 모집

군부대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을 찾습니다.
파트: 소프르노 2명, 엘로 2명 대상: 50세 이하 여성
연락처: 심순덕 집사 ☎11-247-4398

대학부 소그룹 돌보개

고아원 금마연을 위한 일일차집
일시: 20일(목) 10:00~21:00
장소: 제2교육관 1층 코노노이홀

교회 소식은 길



예배 안내

구분	시각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오전 1:00(특별예배)	본당
V	오전 3:00	본당
VI	오전 5:00(예배)	본당
한 해 예배	오전 5:00	본당
수요 예배	1:00~11:00	본당
금요일 예배	오전 7:00	본당
세례기도회	오전 5:00	본당

성·기·는·본·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김의철 (신도회장)	조성근 (신도회장)	김은호 (신도회장)	노영국 (신도회장)	오진국 (신도회장)
이병하 (신도회장)	윤인현 (신도회장)	최태민 (신도회장)	엄필성 (신도회장)	강도용 (신도회장)
오정현 (신도회장)	이 훈 (신도회장)	남순수 (신도회장)	정운식 (신도회장)	김영길 (신도회장)
문용주 (신도회장)	조인재 (신도회장)	김종구 (신도회장)	최무길 (신도회장)	김천재 (신도회장)
이창호 (신도회장)	차신록 (신도회장)	김재명 (신도회장)	박영식 (신도회장)	김광남 (신도회장)
이종식 (신도회장)	유창철 (신도회장)	이희영 (신도회장)	박민진 (신도회장)	김인관 (신도회장)
이병욱 (신도회장)	안준호 (신도회장)	최명환 (신도회장)	임무현 (신도회장)	이종심 (신도회장)
최기훈 (신도회장)	이재계 (신도회장)	전홍용 (신도회장)	전홍원 (신도회장)	이정우 (신도회장)
김단용 (신도회장)	정영일 (신도회장)	신 철 (신도회장)	김영수 (신도회장)	
장종식 (신도회장)	김한기 (신도회장)	원승훈 (신도회장)	이형수 (신도회장)	안동현 (신도회장)
정현원 (신도회장)	김구형 (신도회장)	최윤덕 (신도회장)	이계민 (신도회장)	박덕영 (신도회장)
이대식 (신도회장)	정태두 (신도회장)	박종우 (신도회장)	권명숙 (신도회장)	조환관 (신도회장)
배운식 (신도회장)	김영달 (신도회장)	이성호 (신도회장)	박선섭 (신도회장)	최지훈 (신도회장)
노영환 (신도회장)	박철구 (신도회장)	정정길 (신도회장)	신상수 (신도회장)	강철형 (신도회장)
고재수 (신도회장)	김영문 (신도회장)	김영문 (신도회장)	김영문 (신도회장)	김영문 (신도회장)

■ 부목사

이종석 (신도회장)	이종현 (신도회장)	정현민 (신도회장)	김동하 (신도회장)	차복남 (신도회장)
김병태 (신도회장)	서광진 (신도회장)	정형성 (신도회장)	이준경 (신도회장)	박민진 (신도회장)
여성기 (신도회장)	류희희 (신도회장)	노경숙 (신도회장)	이종철 (신도회장)	김영환 (신도회장)
여국진 (신도회장)	김교성 (신도회장)	송길환 (신도회장)	이수근 (신도회장)	이유진 (신도회장)
안창덕 (신도회장)	박종원 (신도회장)	나영환 (신도회장)	정진호 (신도회장)	김용득 (신도회장)
이성욱 (신도회장)	고광환 (신도회장)			

■ 찬양감독 김광구

■ 여전도사

김진희 (신도회장)	김경자 (신도회장)	송향자 (신도회장)	신동자 (신도회장)	윤숙자 (신도회장)
김영수 (신도회장)	한영환 (신도회장)	김영희 (신도회장)	홍순애 (신도회장)	이유주 (신도회장)
김정자 (신도회장)	안태순 (신도회장)	최희성 (신도회장)	백영자 (신도회장)	김정원 (신도회장)
조옥자 (신도회장)	강덕희 (신도회장)	김정선 (신도회장)	장재구 (신도회장)	최문실 (신도회장)

■ 교정전도사 박영덕

■ 신교전도사 정은희 강기영

■ 선교과 최은아(신도회장)

■ 협력선교사 허효섭(신도회장)